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4, pp. 943-960.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943>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괴롭힘 주변인의 방어 및 동조 행동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오인수(吳仁秀)*

임영은(林伶垠)**

김서정(金瑞貞)***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및 집단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대처전략(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과 주변인 행동(방어정도, 동조정도), 집단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대처행동은 방어정도와, 공격적 대처행동은 동조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방어의 정도가 높으며, 공격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집단효능감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공격적 대처행동 전략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집단효능감은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한 방어정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격적 대처행동이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또래간 괴롭힘, 스트레스 대처전략, 주변인 행동, 집단효능감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lim@ewhain.net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졸업

1. 서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또래간 괴롭힘(bullying)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 국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가해자(bully)와 피해자(victim)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나아가 주변인(bystande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예라, 오인수, 2018; 송지연, 2016; 오인수, 2010; 이승연, 2013; 최지훈, 남영옥, 2017; Hawkins, Pepler, & Craig, 2001; Oh & Hazler, 2009). 주변인이란 또래간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또래들을 의미한다(Salmivalli, 1999).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유지되는 한 괴롭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변인은 이러한 힘의 역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지닌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오인수, 2010; 정제영 외, 2013). 주변인은 크게 가해자를 따르며 가해행동을 돕는 동조자(assistant)와, 피해자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방어자(defender), 그리고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방관자(outsider)로 구분된다(Salmivalli et al., 1996). 또래간 괴롭힘 발생 시 학급의 보다 많은 학생들은 주변인의 역할에 놓이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주변인은 괴롭힘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이 된다(남미애, 홍봉선, 2015).

주변인 가운데 가해자 편에서의 동조자와 피해자 편에서의 방어자는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먼저, 가해자의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동조자의 행동은 가해자의 행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괴롭힘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변인 행동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가해행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방어자의 행동은 가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괴롭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힘을 갖는다(Hawkins et al., 2001; Salmivalli,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도움의 측면에서 상반되는 동조자와 방어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도 증가추세에 있다(남미애, 홍봉선, 2015; 송지연, 오인수, 2016; 오인수, 2010; 진천사, 오인수, 2018). 특별히 본 연구는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 중 아직까지 잘 연구되지 않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주목하였다. 또래간 괴롭힘은 비단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인식된다(이인희,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에 노출된 주변인은 피해자와 같은 많은 불안감과 고립감, 절망감, 무능감을 느끼며(Hazler, 1996),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침 속의 코르티솔 농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ney et al., 2010). 이러한 점에서 또래간 괴롭힘은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정혜경, 김경희, 2000; Olfasen & Viemero, 200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면 괴

롭힘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격하면 간접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대리 경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Bandura, 1977). 즉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관찰 경험에 의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피해자나 가해자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또래간 괴롭힘과 같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와 관계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음이 보고된다(임성택, 김성현, 2007; Band & Weisz, 1988). 같은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더라도 개인이 어떠한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숙, 2007; 신현숙, 2001; 이옥주, 2003; 이은희, 2003).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Pearlin & Schooler, 1978), 또래간 괴롭힘 목격 상황에서도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동일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 유형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그 중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 적극적 대처행동은 서로 대비되는 전략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반면, 적극적 대처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대표적 전략으로 알려져 왔다(박혜원, 진미경, 2015; 신재선, 정문자, 2002). 먼저, 문제 상황에서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과 같은 신체·언어적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격적 대처행동은 가해자나 가피해자와 같이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대처전략이다(신재선, 정문자, 2002; 장윤옥, 2013). 또래간 괴롭힘 가해행동이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주변인 역시 가해학생의 행동에 쉽게 동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공격성향이 높은 주변인이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오인수, 2010), 동조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박소현, 2017).

반면에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스스로 계획 또는 전략을 세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행동은 대표적인 긍정적 대처전략으로 여겨진다(장윤옥, 2013). 일례로 오인수와 임영은(2016)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은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미예와 박완주(2008)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은 비행성향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김혜정과 백용매(2006)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성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체적, 언어적으로 참여하거나 가해자를 때어놓는 등의 능동적 개입을 하는 방어자(O'Connell, Pepler, & Craig, 1999)와의 상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묵인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적극적 대처행동은 타인을 돕는 방어자의 도움행동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손장숙과 이규미(201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어자는 이성적 판단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를 돕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러한 방어자의 적극적인 도움행동은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을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괴롭힘 해결에 대한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괴롭힘 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집단역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괴롭힘 참여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almivalli et al., 1996). 집단효능감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 특정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적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Bandura, 2001; Guzzo, Yost, & Shea, 1993), 이에 근거하여 개인은 어떤 일을 수행할지 말지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지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괴롭힘 현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는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괴롭힘 해결에 대한 집단효능감은 집단 구성원들이 또래간 괴롭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처방식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가정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괴롭힘 해결에 대한 집단효능감은 일종의 보호요인과 같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공격적 대처가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경희, 손연경, 이승연(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효능감에 대한 강한 믿음은 개인으로 하여금 괴롭힘 방어행동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으며, Williams와 Guerra(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집단효능감의 향상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적극적 대처가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학교 변수들의 경우 공격성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지 못했다는 김민정(2012)의 연구결과는 공격적 대처가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집단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그리고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및 집단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각의 세부 전략과 주변인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다르게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집단효능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3. 공격적 대처행동이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는 수도권 지역 4개 초등학교를 편의표집하여 4학년 학생 4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수거된 251개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해 총 229명(남학생 89명, 여학생 1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스트레스 대처전략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척도를 박진아와 정문자(2001)가 초등학생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4개의 하위요인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란 또래간 괴롭힘과 같은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며(Lazarus & Folkman, 1984),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또래간 괴롭힘 간 상관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Bowker et al., 2000),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Pearlin & Schooler, 1978) 이 척도는 학생들의 행동문제(박진아, 정문자, 2001)와, 비행성향(김미예, 박완주, 2008), 또래괴롭힘(오인수, 임영은, 2016), 학교폭력(김병안, 2014; 임성택, 김성현, 2007) 등과 같은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된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묻는 문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적 대처행동을 묻는 문항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돌려주거나 욕해준다’ 등으로 여기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이란 괴롭힘 가해행동이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정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Hazler, 1996) ‘가해자’로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적극적 대처행동 .86, 공격적 대처행동 .83으로 나타났다.

2) 집단효능감

Barchia와 Bussey(2011)가 개발한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는 ‘함께 힘을 모아 괴롭힘을 막을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또래간 괴롭

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괴롭힘 해결에 대한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다. 총 9개 문항으로 '절대 할 수 없다'부터 '매우 잘 할 수 있다'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8으로 나타났다.

3) 주변인 행동

Salmivalli 등(1996)의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를 서미정(2008)이 수정하여 개발한 주변인 행동척도 중에서 방어자(이하, 방어정도)와 동조자(이하, 동조정도)를 파악하는 각 6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을 사용했다. 방어정도에 대해서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등으로 질문하였고, 동조정도에 대해서는 '반 친구들이 한 아이를 괴롭힐 때 옆에서 괴롭히는 아이를 응원한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괴롭힘 주변인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방어정도의 경우 .90, 동조정도의 경우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변인의 분포를 확인한 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집단효능감, 방어정도, 동조정도 간의 상관관계 및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5점 평점 척도로 측정된 적극적 대처행동의 평균은 3.710, 표준편차 .878이고, 공격적 대처행동의 평균은 1.575, 표준편차 .710, 집단효능감의 평균은 4.188, 표준편차 .945, 방어정도의 평균값은 3.375, 표준편차 1.018, 동조정도의 평균값은 1.331, 표준편차 .501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은 방어정도와($r=.415, p<.01$), 공격적 대처행동은 동조정도와

($r=.241, p<.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방어를 하며, 공격적인 해결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집단효능감은 적극적 대처행동($r=.365, p<.01$)과는 정적 상관을, 공격적 대처행동($r=-.202, p<.01$)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공격적 대처행동 전략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1.322에서 2.234 사이였으며, 첨도는 -.226에서 6.782로 왜도 |3|, 첨도 |10|의 기준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담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Kline, 2010).

〈표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집단효능감	방어정도	동조정도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238**				
집단효능감	.365**	-.202**			
방어정도	.415**	-.082	.291**		
동조정도	-.038	.241**	-.079	-.007	
M	3.710	1.575	4.188	3.375	1.331
SD	.878	.710	.945	1.018	.501
왜도	-.483	1.418	-1.322	-.361	2.234
첨도	-.018	1.496	1.630	-.226	6.782

** $p<.01$

2.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집단효능감이 적극적 대처행동과 방어정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적극적 대처행동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집단효능감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효능감은 종속변수인 방어정도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적극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도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1단계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은 방어정도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420, p<.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7.7%였다. 2단계에서 조절변인인 집단효능감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beta=.359, p<.001$)과 집단효능감($\beta=.170, p<.05$)은 방어정도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의 방어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20.2%로 이전 단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적극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의 상호작용 항에서도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beta=.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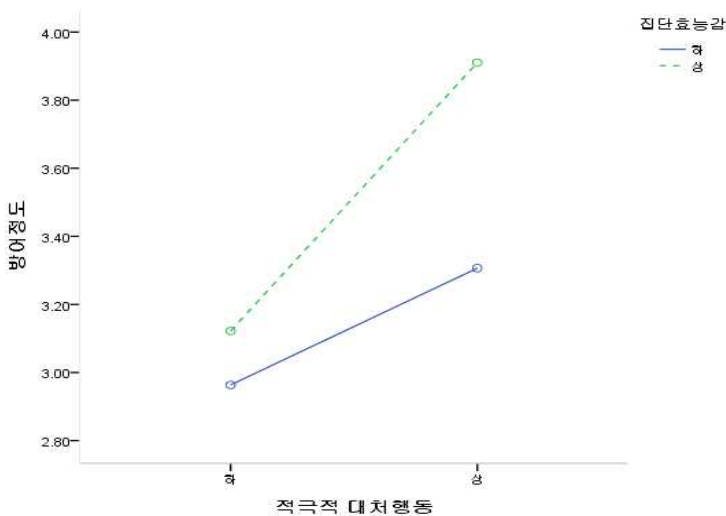
$p < .05$), 설명력 또한 22.1%로 이전 단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따라서 집단효능감이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한 방어정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표 2〉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수	B	β	R^2	ΔR^2	F
1단계	적극적 대처행동	.584	.420 ^{***}	.177		45.057 ^{***}
2단계	적극적 대처행동	.498	.359 ^{***}	.202	.025	26.393 ^{***}
	집단효능감	.120	.170 [*]			
3단계	적극적 대처행동	.496	.357 ^{***}	.221	.019	19.663 ^{***}
	집단효능감	.154	.217 ^{**}			
	적극적 대처행동X집단효능감	.021	.146 [*]			

* $p < .05$, ** $p < .01$, *** $p < .001$

적극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단순회귀선을 구하였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이 낮을 경우, 집단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방어정도를 보이는 반면, 적극적 대처행동이 높은 경우에는 집단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방어정도를 보였다.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집단효능감이 방어행동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적극적 대처행동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방어행동의 증가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3. 공격적 대처행동이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공격적 대처행동과 동조정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공격적 대처행동이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수	<i>B</i>	β	R^2	ΔR^2	<i>F</i>
1단계	공격적 대처행동	.197	.240***	.057		12.984***
2단계	공격적 대처행동	.196	.239**	.057	.000	6.456**
	집단효능감	-.002	-.006			
3단계	공격적 대처행동	.188	.229**	.063	.005	4.699**
	집단효능감	.002	.006			
	공격적 대처행동X집단효능감	-.006	-.074			

* $p < .05$, ** $p < .01$, *** $p < .00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은 동조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240$, $p < .001$). 다시 말해, 공격적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주변인의 경우 괴롭힘 동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동조행동의 약 5.7%가 공격적 대처행동에 의해 설명되었다. 반면에 2단계에서 집단효능감은 동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eta = -.006$, *NS*), 3단계에서 공격적 대처행동과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또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beta = -.074$, *NS*) 집단효능감은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동조정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처전략과 주변인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자 수도권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대처전략(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과 주변인 행동(방어정도, 동조정도), 집단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전략(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주변인 행동(방어정도, 동조정도), 집단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및 각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은 방어정도와, 공격적 대처행동은 동조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적극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방어의 정도가 높으며, 공격적 대처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양연숙, 2012)와 유사한 맥락에서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방어행동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공격적 대처행동은 가해자와 같이 공격성이 많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신재선, 정문자, 2002)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선호하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공격행동에 쉽게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또래간 괴롭힘 교육에 있어 대처전략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와 동시에 주변인 행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단효능감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이, 공격적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공격적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지각한 학급의 집단효능감이 방어행동을 증가시켰다는 Barchia와 Bussey(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래간 괴롭힘 주변인 개입에서 집단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각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격적 대처행동과 동조정도가 다른 척도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인의 특성상 다른 선행연구들(서미정, 2008; 이선미, 유성경, 2013; 이인희, 2012; 최유진, 2013)에서도 대체로 낮게 나오는 편으로 분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대처행동과 동조행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의 한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보고식이나 관찰법, 교사평정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은 방어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R^2=.177, p<.001$). 따라서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스스로 행동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 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 집단효능감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R^2=.202, p<.001$). 따라서 학급 내에서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학급 내 구성원이 어떻게 괴롭힘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방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극적 대처와 집단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집단효능감은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한 방어정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효능감

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 성향이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집단효능감이 주변인의 대처행동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해결을 위한 개입에서는 개인에게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가르침과 동시에 학급 구성원이 집단효능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oddard, Hoy와 Hoy(2004)에 따르면 집단효능감 향상은 자기효능감 향상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이를 위해 성공경험과 간접경험, 그리고 사회적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괴롭힘의 개입에서는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적극적 대처 이후 보복이나 헐박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집단구성원 모두가 함께 방어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똑같은 능력을 가진 집단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개인은 집단효능감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효능감에 대한 교육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Gibson(1999)에 따르면 집단 내 구성원들이 갖는 정보의 양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집단효능감을 다르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사는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되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반 구성원들이 또래간 괴롭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학생들과 함께 또래괴롭힘의 효과적 해결에 대한 신념에 대해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격적 대처행동이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은 동조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여($R^2=.057, p<.001$)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충동적으로 맞받아 공격하거나 욕설 등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의 편에 서서 괴롭힘을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적극적 대처행동이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R^2=.177, p<.001$)에 비해서 그 영향력은 적었다. 그리고 집단효능감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집단효능감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했다. 앞선 분석에서 집단효능감의 정도가 방어행동을 예측했던 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주변인이 인식한 집단효능감이 긍정적인 방어행동을 촉진시키지만 동조행동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격적 대처와 집단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공격적 대처가 동조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집단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방어행동에 집단효능감이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와 비교하면 집단효능감은 주변인의 동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효능감과 같은 보호요인은 긍정적 대처행동으로 여겨지는 적극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공격적 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주변인의 동조행동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효능감이 공격적 대처행동과 동조정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조자는

강한 공격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김현주, 2003; 윤성우, 2004), 공격성향과 같은 위험요인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요인으로 공격성의 영향력을 줄이기 어렵고(김민정, 2012), 한 개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보호요인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Jessor et al., 1995; Pollard, Hawkins, & Arthur, 1999)가 보호요인에 해당하는 집단효능감이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공격적 대처행동과 동조정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동조자가 또래괴롭힘 참여자 가운데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역할로 나타난 서미정(2015)의 연구결과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역할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적절한 중재를 통해 동조자를 방어자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절변인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주변인들 간의 역동, 특히 가해자 편에서 힘을 더하는 동조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종합해보면 집단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효능감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강력하며(Goddard, 2001), 교육의 성과란 개인의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동의 산물이라는 점(박부권 외, 2002)을 기억한다면, 학교는 하루빨리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학급 공동체가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괴롭힘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들과 더불어 집단효능감과 같은 집단 변인들을 보다 많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 간 영향력의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횡단 설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단 설계와 같은 방법으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에서 적극적 대처와 공격적 대처의 2가지 종류에 대해 주변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처, 예를 들어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등의 다른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셋째, 주변인의 행동반응 역시 본 연구에서는 방어자와 동조자의 서로 대립적인 유형에 대해 분석했지만 주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관자(outsider)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집단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주변인의 행동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 상정되었다. 최근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 변인의 영향력이 주목받는 추세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었으나 보다 다양한 환경 변인들, 예를 들어, 집단응집력, 학급에 대한 소속감, 학급 만족도 등의 여러 환경 변인들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미예, 박완주(2008).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아동간호학회지 제, 14(4)**, 415-422.
- 김민정(2012).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학교 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3**, 1-28.
- 김병안(2014). 청소년 역량강화활동이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현주(2016). 청소년의 가정언어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중독 및 생태체계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혜정, 백용매(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683-699.
- 남미애, 홍봉선(2015).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0)**, 109-144.
- 박부권, 김경근, 김영화, 이미나, 이해영, 심연미, 조금주, 김제명(2002). **교육공동체 변화에 관한 연구: 권력집중형 교육공동체로부터 탈중심형 교육공동체로의 이행**.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소현(2017).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125-136.
- 박영숙(2007).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1)**, 101-121.
- 박예라, 오인수(2018). 초등학교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1)**, 1-27.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22.
- 박혜원, 진미경(2015).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13(3)**, 77-95.
- 서미정(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미정(2015). 아동 후기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안정성 및 변화와 환경적 특성과의 관계: 주변 또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Korean J. of Child Studies, 36(4)**, 17-32.
- 손강숙, 이규미(2015).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17-348.
- 송경희, 손연경, 이승연(2018). 중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인지적 재평가,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489-509.
- 송지연(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지연, 오인수(2016).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23(5), 457-478.
- 신재선, 정문자(2002).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123-138.
- 신현숙(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5(4), 297-321.
- 양연숙(2012).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 **영재교육연구**, 22(4), 841-853.
- 오인수(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오인수, 임영은(2016). 공격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 및 문제해결방식의 차이. **교육문제연구**, 29(2), 23-46.
- 윤성우(2004).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선미, 유성경(201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 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09-1226.
- 이승연(2013). 또래괴롭힘: 주변인 개입과 사회적 맥락 변화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59-82.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은희(2003). 소년소녀가정청소년들의 대처전략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225-250.
- 이인희(2012).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지영(2014). 아동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집단따돌림 동조 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성택, 김성현(2007). 스트레스자극-학교폭력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통제 및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8(2), 451-466.
- 장운옥(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1(1), 231-260.
- 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태훈, 류성창(2013). 주변인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4(2), 119-143.

- 정혜경, 김경희(2000). 학교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1), 137-147.
- 진천사, 오인수(2018). 루머 확산의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3(1), 995-1019.
- 최유진(2013). 괴롭힘 피해상황에서 주변인 행동유형에 따른 피해학생의 대응방식: 통제욕구, 통제 지각 및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지훈, 남영옥(2017). 학교폭력과 주변인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2), 275-297.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archia, K., & Bussey, K. (2011). Individual and collective social cognitive influences on peer aggression: Exploring the contribution of aggression 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collective efficacy. *Aggressive Behavior*, 37(2), 107-120.
- Bowker, A., M. Bukowski, W., Hymel, S., & K. Sippola, L. (2000). Coping with daily hassles in the peer group during early adolescence: Variations as a function of peer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2), 211-243.
- Carney, J. V., Hazler, R. J., Oh, I., Hibel, L. C., & Granger, D. A. (2010). The relations between bullying exposures in middle childhood, anxiety, and adrenocortical activity. *Journal of School Violence*, 9(2), 194-211.
- Gibson, C. B. (1999). Do they do what they believe they can? Group efficacy and group effectiveness across tasks and cul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2), 138-152.
- Goddard, R. D. (2001). Collective efficacy: A neglected construct in the study of schools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3), 467-476.
- Goddard, R. D., Hoy, W. K., & Hoy, A. W. (2004). Collective efficacy beliefs: Theoretical developments, empirical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Educational Researcher*, 33(3), 3-13.
- Guzzo, R. A., Yost, P. R., & Shea, G. P. (1993). Potency in groups: Articulating a constru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87-106.
- Hawkins, D. L.,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4), 512-527.
- Hazler, R. J. (1996). Bystanders: An overlooked factor in peer on peer abuse. *Journal for the Professional Counselor*, 11(2), 11-21.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 Lee, S. Kim, & S. Jeon,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O'Connell, P.,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37-452.
- Oh, I., & Hazler, R. J. (2009). Contributions of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to bystanders' reactions to schoo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3), 291-310.
- Olafsen, R. N., & Viemerö, V. (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coping with stress in school among 10-to 12-year-old pupils in Åland, Finland. *Aggressive Behavior*, 26(1), 57-65.
- Pea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53-459.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Williams, K. R., & Guerra, N. G. (2011).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bullying perpetration in schools. *Social Problems*, 58(1), 126-143.

- * 논문접수 2019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9월 16일 / 2차 심사 2019년 12월 12일 / 게재승인 2019년 12월 12일
- * 오인수: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counselor education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분야는 학교상담, 학교폭력 등이다.
- * E-mail: insoo@ewha.ac.kr
- * 임영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학교폭력, 인성교육 등이다.
- * E-mail: lim@ewhain.net
- * 김서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학교폭력, 다문화청소년 등이다.
- * E-mail: seojung@gmail.com

Abstract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Bystander's Reactions

Oh, In Soo^{*}

Lim, Young Eun^{**}

Kim, Seo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oping strategies, bystander's reactions, and collective efficacy. A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coping strategies and bystander's reactions was examined.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29 fourth grade students in four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Coping strategies(active coping, aggressive coping), bystander's reactions(defending behavior and assisting behavior), and collective efficacy were assess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initial analysis revealed that active cop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fending behavior, and aggressive cop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ssisting behavior. Collective 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coping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ve coping.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e coping and defending behavior was moderated by collective efficacy. The relationship of aggressive coping with assisting behavior was not moderated by collective efficacy. Education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Bullying, Coping Strategies, Bystander's Reactions, Collective Efficacy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h.D,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